

상인회에게 해악주는 신세계건설 민원해결사

동부로 30길 상인회 대상 각종 민원 제기 드러나 상인들 분노

지난 23일자 본지 기사에 대해 변 모씨는 "억울하다. 기사가 한 자도 맞는 게 없다"고 말했다. 동부로 30길 상인회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변 모 씨는 신세계건설의 민원해결사인 변 모 씨의 기사(본지 12월 23일자)에 대해 동부로 30길 상인회(이하 상인회)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변 씨는 신세계건설이 백화점을 건설할 시 교통대란 방지위원장으로 출발해 신천4동 주민의 민원을 온몸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의 아쿠아리움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한편, 상가 앞 라인 일부 또는 전부 개보수, 신세계와 상생, 주차단속 민원, 동구청의 민원 등을 해결했고 백화점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해 신천4동에서 고맙다고 상을 주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지(자기)말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일

축했다. "변 씨가 사용하는 건물의 노인회에 기부한 한 사실이 있어 속 모르고 노인회에서 고맙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인들 대부분에게는 너무 불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 약점을 잡아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자며, 신천4동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변 씨가 백화점과 신천4동 주민이 아쿠아리움 입장 시 50% 할인 혜택을 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화점관계자는 아쿠아리움은 임대 매장이며 백화점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현재 신천동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상가 앞 라인 일부 또는 전부 개보수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한 명도 수혜를 입은 상인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상인회원 중 4-5명만 반대할 뿐 그들은 외지인으로 일당을 받고 집회를 한다며,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현재 동부로 30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이었으며, 동구청과 동부로 30길 교통단속도 없

록 혐의했는데 상인회에서 시위를 계속해 다 시하게 됐다.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니며, 사실 무근이라 했다.

변 씨 말에 따르면 동부로 30길 한전 지중화 공사는 주민 300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곧 공사가 재개된다고 했지만, 상인회와 신천4동상인연합회는 구청에서 민원이 있으면 공사를 옯는다는 말에 구청에 공문을 보낸 지가 오래됐으며, 서명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또 변 모 씨 측은 위생법, 불법건축물 등으로 동구청에서 단속 나오면 적극적으로 상인회 측을 옹호해 온몸으로 민원을 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상인회의 박 모 씨는 변 씨의 주류영업에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자 계속된 민원으로 벌금 252만 원을 납부했다며, 영수증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위생점검과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라고 공문 보낸다"라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또 백화점 시공식 때 돌연 시위가 중단된 것은 신세계측이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조건이라 했지만 상인회는 일부 간부와 변 씨가 이익을 독차지 했으며, 황당해 했다.

재목이라는 참집은 원래 변 씨가 식당을 하던 자리로 주류상회로 변경했던 장소다.

변 씨는 "선배들이 운영했으며, 신세계 건설시 앞 라인 9개 식당은 돈을 다 벌었는데 재목만은 적자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재목만 적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변 씨가 본인을 주민의 99%가 환영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자기와 조금만 안 맞으면 민원을 제기해 못살게 한다"며, "신천4동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 자치위원과 신천4동 상가연합회장은 "변 씨에 대한 이야기는 주민이 말 한대로다. 현재 단결해야 할 처지에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씨는 상인회의 공동이익을 일부 간부와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 본지 기사내용이 자기와는 한자도 맞는 내용이 없으며,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관계당국은 상인회와 변 씨와의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세계건설은 변 씨와의 거래를 밝히고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상인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여은 기자

김관용 경북지사
대권도전 아직은 '비공식화'

도정 방향 기자회견
"공식 대권 선언하지 않았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시사했던 김관용 경북지사가 대권도전을 비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2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성과와 2017년 도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인 대권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 놓은 것은 사실이다"며, "보수열차를 수선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의 경제 등이 발전하면서 무임승차를 했던 것들이 이번에 발견돼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재 갈라져 있는 보수열차를 수리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든 보수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지방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직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정례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대권도전을 시사했다. 김성용 기자

두피에 흡수가 잘되는 미세구조 침투케어

모ReTurn

080-850-9733



'위안부 합의 1주년... 소녀상은 얼마나 추울까'

위안부 합의 1주년인 28일 전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씌어진 모자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동성로에" 위안부 합의무효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가져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선언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해 중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28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결정된 일본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들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며, "이 합의가 사드미사일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9·여) 씨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게 사죄를 받아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본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김성팔 공동의장은 "젊은 이들이 소녀상을 볼 수 있게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며, "중구청이 협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희 기자

AI, 경북 지자체들 행사 잇단 취소

영덕군,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해맞이 잇따라 취소 결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경북도내 각 지자체단체의 연말연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다.

28일 도내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AI로부터 양계농가 보호 및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경북도는 31일 영덕군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기로 했던 '제야의 종' 타종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명소 호미곶에서 매년 1월 1일 해맞이축전을 열던 포항시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미시와 안동시, 봉화군도 2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다고 밝혔다. 경산시와 칠곡군도 AI 유입 및 확산 저지를 위해 해맞이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김천에서 개최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김천시도 고성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읍면동 행사도 자제하도록 했다.

경주시도 지난달 설치한 신라대종 타종식을, 안동시는 용부공원에서 매년 12월 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개최하던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AI와 관련된 긴급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어 올해 대부분 지자체의 연말연시 행사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구 기자

아주 20분씩 12권 책임지기 **책의 힘**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의 힘"

세상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며
나를 반성하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임병헌 남구청장은 29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남구예선대회 시상식'에 참석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29일 오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하반기 퇴임자 공로패 전달식'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9일 오전 오페라웨딩에서 열리는 '경로당회장 회의 및 송년회'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9일 오후 달성군청에서 열리는 '퇴직공무원 공로패 전달식'에 참석한다.

중구,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 오늘 오픈



중구는 29일 오후 남산동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하는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중구 명륜로12길 47)의 오픈식을 가졌다.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926.92㎡, 주차대수 35면(장애인 1, 여성 2)이고 이용요금은 1급지 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과 동일한 기본 30분 500원, 이후 10분당 2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무료개방, 일요일, 공휴일은 전일무료)

오픈식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장(서숙자 루갈타) 등 종교계 인사를 비롯해 남산1동, 2동, 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새로 건립된 공영주차장을 통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며, "가톨릭당은 주변에 도시미관 개선과 남산향수길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수성구, 바르게 걷기 멘토양성 교육 수료식 수성구는 27일 오후 수성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바르게 걷기 멘토 양성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생 100여 명은 내년 1월부터 수성구 23개 동에서 바르게 걷기 멘토가 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걸으며 건강을 찾기 위한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8개 세부지표 골고루 높은
평가 받아,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교부



동구청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도에 이어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8개 세부 지표인 △정부3.0 변화관리 △정부 3.0 확산 노력 실적 △국민 맞춤형서비스 추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추진 실적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일하

는 방식 개선 실적 △정보공개 성과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 사례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정부3.0 대학생 행정참여제 개최 △주머니속 동전 100원을 모아 나눔운동 실천 '100원의 큰사랑' △한방으로 건강을 한방에!! △한발 앞서는 행정 '민생!! 현장속으로' △매월1회 취약(지역) 선정 후 방문조사 등 안전 MU 재난 단다기동반 운영 △에너지 빈곤 계층 골목길에 태양광 보안 등 설치 등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재무회계가 정부3.0을 만나! '재무회계3.0 이해' 책

자 발간 등이 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서간 소통·협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2016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그동안 이론 정부3.0 성과의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정부3.0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형 기자

조류독감 확산 방지가 우선

2017 동구해맞이 행사 취소

붉은 닭의 해, 정유(丁酉)년을 맞아 구민들이 함께 새해 첫 해돋이를 진행하는 '2017 동구해맞이 행사'가 취소된다.

내년 1월 1일 오전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효목동 212-2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17 동구해맞이 행사'는 지난 주 동구 신서동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니에서 조류독감(AI) 확진판정이 뉴스에서 보도됐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노약자들 중심으로 독감도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 진행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연일 수많은 가금류(닭, 오리)와 철새들을 살처분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식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독감 유행 또한 백신 부족 또는 품귀현상까지 낳고 교육청에서는 조기 방학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마다 해맞이 행사로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포항 호미꽃과 울산 간절곶 등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들이 최근 AI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경산과 경남 양산과의 인접 지역을 사유로 들며 잇달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 AI 확진 판정이 공식화된 동구에서 해맞이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AI 확산 방지 정책과도 상반되는 일이라고 판단돼 행사를 앞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남주형 기자

남구청, 사회적 약자 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남구청은 내년부터 대구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구청 민원실 여권 창구를 찾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지난 26일, 봉덕3동 소재 예화사진관(대표 박무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권발급 시 구청에서는 무료촬영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필증을 발부하며 대상자는 이를 해당 사진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이번 시책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남구 만들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수성구, 턱 낮추니 모두가 편리하네

공원·유원지 내 화장실 20개 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 완료



수성구는 관내 공원과 유원지 내 화장실 20개소에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 시각장애인

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수성구는 공원 내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일부 화장실에 턱 낮추기 공사를 실시해 시각장애인도 물론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용자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수성구 공원과 유원지 내 화장실 주변에 점자블록 등의 시설물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편의시설 정비사업 완료로 공원과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선됐다.

류재현 기자

달성군, 성악중창페스티벌 성료



달성군은 27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김문오 달성군수, 여창환 매일신문사 사장,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초청인사를 비롯해 일반 전화예매 신청자 등

관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성악중창페스티벌(Se7+en Ensemble)행사를(주관 달성문화재단)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악중창단과 특별출연진을 포함한 7팀과 앞으로의 발전을 표방한 플러스를 추가해 '세븐플러스 앙상블'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표 공연장 중 하나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다.

유엔젤보이스, The tones3, 열인, 아르스노바, 인칸토, MSG 등 국내 유명 성악중창단을 비롯해 파페라가수 카이, 바리톤 고성현 등 실력과 아티스트가 출연 및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문화수준을 충족시켰으며, 특히 다양한 장르로 편성된 곡과 오케스트라 반주를 더해 성악중창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의 부리 달서성

달성군이 새로운 내일을 시작합니다!

대구와 역사와 함께 해온 달성군이 장란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실적 혁명의 도시, 달서로 오십시오.

비슬산 대경사

사물진 주막촌

비슬산 백화야영

강전보 디아크

비슬산 자연유원지

대구광역시달서군
DAEGU CITY DALSEONG-GUN

교육 대학

대구광역시 6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경북전문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경북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실시한 '2016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28일 경북전문대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교육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전문대는 2011년 첫 시행된 기관평가인증에서 5년간 인증(2012-2016)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재인증(2017-2021)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201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운영 시스템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경북교육청, 정보보호 수준 매우우수 평가 획득

경북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2년 연속 매우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침해사고 대응체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사이버 위기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정보보호 전반에 걸친 활동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2년 연속 매우우수 평가를 위해 노력한 정경희 재무정보과장은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정보보호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다. **김용구 기자**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경산시청서 공직자 윤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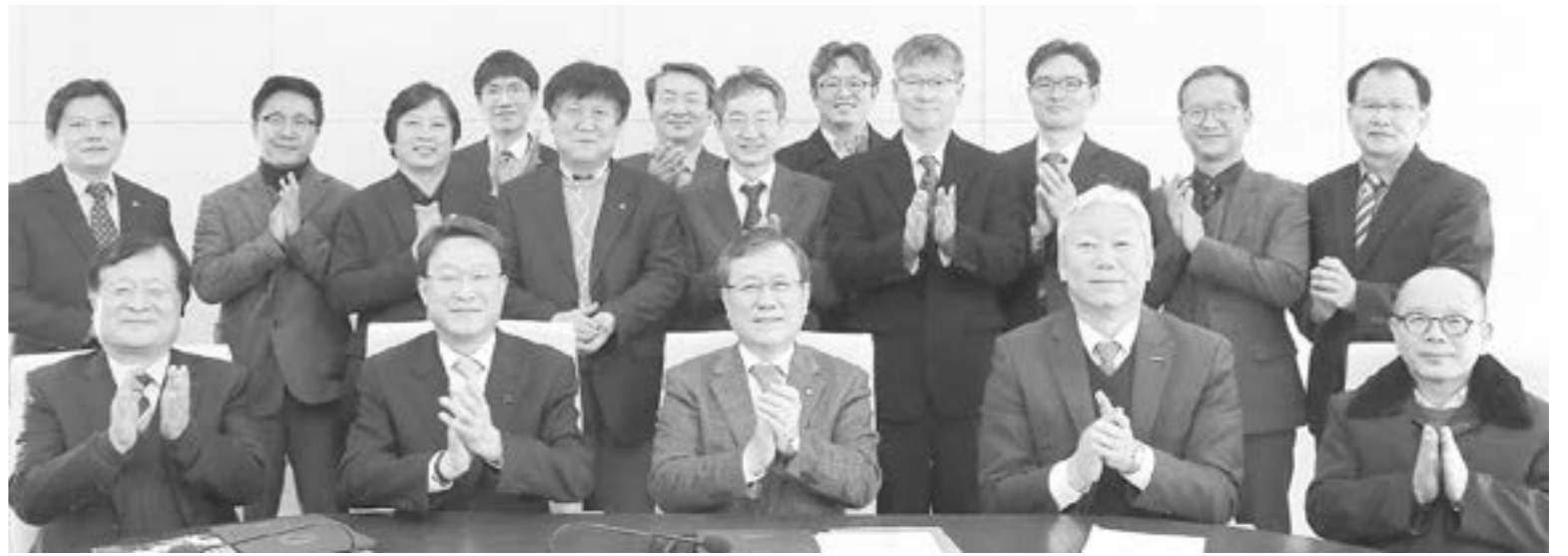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27일 오후 경산시청 강당에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기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공직자 윤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 국정교과서, 사드, 위안부 문제 등 정부 불신과 국정혼란 등 위기 시대에 있어 공직자의 자세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직자간 확립과 정선협약을 위한 교양 강좌로 진행됐다. 박동균 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신뢰와 소통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시대에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소통과 공감,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교수는 (사)대한지방자치회 회장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 인터넷 국제심포지엄, 대구MBC 시사토크 출연과 제2작전사령부, 대구 달서경찰서, 청도경찰서, 오산시설관리공단 특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DGIST-생명연-UNIST, 노화 연구에 협력

MOU 체결, 노화 분야 연구 협력·업무 교류 노화 관련 학·연 공동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노화분야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원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손을 잡았다.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28일 오전 DGIST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노화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세 기관은 노화 관련 생체 운동성 및 대사성 분야에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지표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또 개인 맞춤형 노화 진단과 이를 위한 노화 예측 및 조절 기술 개발,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학술정보 교류,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DGIST는 노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박상철 석좌교수를 초빙하며 지난 10월 월에이징 연구센터를 출범해 노화 현상 메커니즘을 규



명하고 동식물 노화 비교·분석을 통한 노화 제어 및 회복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생명연과 UNIST와의 노화 분야 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화 관련 연구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DGIST 신성철 총장은 "앞으로 도래할 초고

령사회에서 건강한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화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연구가 중요하다"며 "이번 MOU 체결로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노화 관련 융복합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경운대, 국내 유일 항공산업 선도대학 '두각'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형부문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선정 9개 대학에 이름 올려

경운대학교가 국내 유일 국가항공산업 교육선도대학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8일 경운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 최대 지원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대형부문(사회수요 선도대학)에서 경운대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2017학년도 정시모집

신소재응용과 등 7개 학과 총 70명 모집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는 2017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신소재응용과 등 7개 학과에 걸쳐 총 7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일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합격여부 및 등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학과는 신소재응용과, 금형디자인과, 산업설비자동화과, 메카트로닉스, 스마트전자과, 스마트전기과(야간포함), 컴퓨터응용기계과 등 7개 학과다. 대구폴리텍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보공시에서 매년 취업률 80% 이상을 달성해 대구경북지역 취업 우수대학의 자리를 굳혔다. 이같이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지력에는 현장실무 중심의 특장적인 교육 모델인 'FL(Factory Learning)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진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2017학년도 편입생 모집

일반편입 25개 학과 252명 학사편입 27개 학과 36명 연계과정 12개 학과 54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2017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유웨이(www.uwayapply.com)를 통해 접수하며, 모집 분야는 일반편입 25개 학과 252명, 학사편입 27개 학과 36명, 의료인력 1개 학과 7명, 연계과정 12개 학과 54

명 총 349명이다. 이번 편입생 모집은 동일 모집단위 외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 첫 학기에 전과도 가능하다. 서울캠퍼스와 복수전공 및 학점교류도 가능하며 이공계와 예·체능계 편입생은 특별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처 누리집(http://ipsi.dongguk.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054-770-2031~4)로 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문학 바탕의 지성과 교양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건학 이념인 '도덕정신함양'을 실현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전담할 '벽강교양대학'도 확대 신설했다. 프라임 대형사업 선정에 따라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운영공동체 운영을 전담할 인재개발처도 신설하고 학내 지원체제도 새롭게 바꿨다. 경운대는 특히 프라임 사업을 계기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모범적인 국내 강소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 모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클러스터, 제2항공교통센터, 신공항 건설 등 국내 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영남권 항공 인프라와 연계해 항공분야 산학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장주석 경운대 총장은 "무인항공기 제작 및 드론 운용 등 미래 항공 산업을 이끌어 갈 실무 인력들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지역 항공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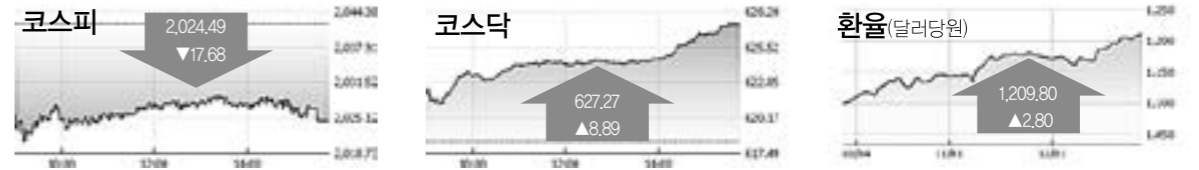
대구교육청, 학부모교육 신규 강사 130여 명 모집에 나서

대구교육청은 내년 1월 3일까지 내년에 활동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 강사 모집에 나섰다. 학부모교육 강사는 연수이수,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을 거친 후 최종 자격을 얻어 모든 학교는 물론, 유치원, 직장·종교단체 등에서 학부모교육 강사로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내년에는 주로 올해 후반기에 개정된 학부모 교육과정에 따라 △부모 역할 △인성교육과 인문학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자기주도학습 △창의적 인재 △진로 등 6개 영역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별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게 된다. 신규 강사를 희망하는 경우, 대구교육청 누리집(http://www.dge.go.kr) 혹은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http://parent.dg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학부모역량개발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1월 13, 14일 이틀 간 대구교육청(행복관)과 센터에서 강사 양성과정 연수를 이수한 후 19, 20일 이틀간 진행되는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에 참여한다. 이날 강의 능력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야 강사단에 최종 선발된다. 내년엔 추진되는 강사 양성과정 연수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춰 2015, 2016 연속 개정된 학부모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강의, 코칭, 상담, 토의와 토론 등 변화가 요구되는 '교육의 방식'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한 학기'에 '한 번'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는 선진적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시스템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열정, 전문성, 진정성을 가진 신규 강사가 대거 강사 양성과정신청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53-231-1482~5) **김진희 기자**

대구학생문화센터 2016 송년음악회 개최

대구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주관하는 2016 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송년음악회에는 대구교육을 결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사랑으로 피운 꽃'이라는 주제로 2016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해 대구를 빛낸 초·중·고등학교 예술동아리팀들을 초청했다. 출연하는 팀들은 △신명고 합창단(제1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교향합창경연대회 대상), △북현중 세로토니드림클럽(제5회 사람·사랑 세로토니드림클럽 페스티벌 대상), △특수학급 연합합창단 '빛솔'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합창 경연 대상), △송원중 관악합주단(제41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중등부 최우수상), △대구상인초 한결음 상인뮤지컬단(제2회 대구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 우수상), △영송여고 뮤지컬반(제2회 전국고교뮤지컬경연대회 우수상), △남양학교 성명석 학생(제2회 전국성악콩쿨 지역대회 3위 입상, KBS 다큐 미니시리즈 '인간극장' 출연) 등이다. 이외에도 경북예고의 우아한 발레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직원연합밴드의 신나는 무대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무대로 준비한 대구예술영재교육원 합창단의 뮤지컬 갈라 공연은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자체 제작 공연한 뮤지컬 3편을 모아 각색해, 지역 뮤지컬 배우 이은서, 이지나, 정효진이 함께 출연해 EG뮤지컬오케스트라단의 반주와 샌드아트 영상에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송년음악회의 연출은 2015년 대구뮤지컬페스티벌(DIMF) 개막식 지휘 및 뮤지컬 '왕의나라', '사랑꽃' 외 다수 작품의 음악감독을 역임한 이은규 감독과 협력연출 오서는 이 함께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이번 송년음악회는 미래의 동력이 될 학생들의 노력과 성장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대구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줄 공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문화센터에서 2016 송년음악회 초대교환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대구 시민들은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문의:학생문화센터 운영부 053)231-1334~5) **김진희 기자**





경북도 신용보증,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 ‘톡톡’

**소상공인 육성자금·햇살론
일취월장 등 4305억 원 지원**



경북도가 출연해 설립한 공적 금융지원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이 지역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해 자금유통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 설립했으며, 기본재산 82억, 직원 11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2본부 4부 10영업점, 직원 79명에 기본재산 1900억 원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명실상부한 경북경제 활성화를 주요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1만9898건 4305억 원 지원

원해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187억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취월장 특례보증 28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과 수해를 입은 울릉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재해 특례보증을 실시, 300여 개 업체에 80억 원을 지원했고,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중단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미지역 협력업체들에게도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561억 원, 메르스 발생 사태 시 621억 원을 보증지원해 국가적 현안에도 적극 동참한 바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5000억 원 보증지원 목표로 서민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정방침에 적극 부응해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일자리창출 관련 업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군과 금융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

보증을 실시해 출연금을 확보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도 주력 할 계획이다.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자립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출연금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구 기자

대구게임아카데미 실무형 게임 인재 배출

최적의 주거환경을 최저 월 6만 원대에

**대구게임아카데미 게임제작
교육·프로젝트 결과발표회**

대구가 지원하고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게임아카데미는 지난 20일 9개월간 추진한 2016 대구게임아카데미 게임제작 교육 및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게임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해 현장형 게임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4기의 졸업생

을 배출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의 대표 게임 기업인 KOG와 업무협약을 맺고, 2D 그래픽 과정/3D 그래픽 과정/프로그래밍 과정 등에서 기업 주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6개월간) 게임 제작 정규과정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6-8명이 한 팀을 이뤄 게임제작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대전, RPG 장르의 게임 3종을 개발함으로써, 총 9개월간 대장정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슈

와 베리의 마법상점’(팀명: HB), 대전 게임인 ‘어디냐? 돌러줘!’(팀명: 판도라), RPG 게임인 ‘Night Mare Break’(팀명: AOS), 이상 총 3개의 게임이 소개됐다.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게임기업 대표자 및 인사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수강생들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시연·평가하는 동시에, 우수 수강생을 사전 채용까지 하는 채용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취업 연계 교육의 모델 제시 및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래 기자

**대구테크노폴리스
행복주택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익수)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 (1020세대-전용21㎡ 650세대, 전용36㎡ 370세대, 내년 5월 입주)을 29일 모집공고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됐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주거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통학·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이 돼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한다.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비슬산이 품은 주거 명당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테크노폴리스로 개통으로 인근 달성1, 2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성서산업단지 근로자에게도 최적의 주거입지를 갖췄다.

보훈병원네거리에서 성서,테크노,국가, 달성1, 2차 산단 방면은 교통 정체가 심각하나, 대구테크노에서 각 산단 방항 교통은 원활해 대구테크노에서 출퇴근시 통근시간은 물론 연료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복주택 월임대료는 보증금 최대납부 시 월 6만 원대 수준으로, 대구동구, 경산시, 달서구 등에서 통근하는 근로자는 교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에 지방권에서 최초로 대구혁신도시에 행복주택 1088세대를 공급해 경쟁률 3.13대 1(3413명 신청)을 기록하는 등 젊은 계층이 행복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 행복주택 두 번째 흥행을 노린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주거, 산업, 연구기능을 연계한 220만 평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로서 대구 중심가에서 20km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나,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으로 대구 도심 접근이 용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인접해 시의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단지 및 인접해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계명대캠퍼스 등 고등 및 초·중등 교육시설 부지가 확보돼 있어 도심과 다름없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대구 달성군에 입주한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교육연구기관에는 기숙사 또는 관사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직원복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한 기업·교육연구기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직원복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휴일을 포함해 행복주택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LH누리집(www.lh.or.kr))과 오프라인 현장(LH 대구경북지역본부 또는 대구테크노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에서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롯데백 대구점, 신년맞이
럭키 스페셜 기프트**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2017년 신년을 맞이해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각종 본 매장 및 행사장에서 유명브랜드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4일간의 대박 찬스를 진행한다.

여성 유명 브랜드 울리치, 보브, 우단모피, 비지트인뉴욕, 케네스레이디 등이 참여해 울리치 럭셔리 아티파카 111만3000원, 우단모피 블랙그라마 휘메일 재킷 390만 원, 빈플레이디스 하이네 펠 장식다운 60만1300원, 케네스레이디 코트 17만4000원, 라쿤피 코트 32만4000원 등에 선보인다.

남성 인기 브랜드에서는 레노마, ANDZ BY 지오지아, 썸소나이트레드가 참여해 레노마 넥타이 최대 60% 할인된 3만5000원, ANDZ BY 지오지아 캐시미어 혼방 코트 29만9000원, 썸소나이트레드 백팩 9만9000원에 판매한다.

스포츠/아웃도어/아동에서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타스키즈, 블랙야크즈 인기브랜드가 참여해 나이키 러닝화 5만9500원,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다운점프 25만9000원, 타스키즈 책가방세트 20만 원, 블랙야크즈 리즈다운 재킷 17만2000원 등에 선보인다. 이상하 기자



대구백 VIP 설 선물 품평회

대구백화점은 지난 23일부터 설 선물세트 예약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대백프라자 사무동 회의실에서 구경모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브랜드 매니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구백화점 VIP 설 선물 품평회’를 가졌다.

대구백화점은 내년 1월 12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선물상품 매장(프라자점 지하 1층 식품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상하 기자

지난 4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40년의 미래를 열어 갈 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합니다

- ✓ 삼성, 포스코와 손잡고 제조업 혁신 3.0 시대를 열어 갑니다
- ✓ 전통문화와 농업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창조산업단지의 요람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혁신과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스마트공장 확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영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종합스포츠센터 등 138개소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
연간 전기 16만kW·온수 4만8000L (등유)·난방비 13만kW절감 효과

영천시는 국제적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스포츠센터 등 공공기관 17개소와 동지역 민간주택 12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난 21일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천시 및 경북도가 주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실시한 사업으로 국도비 43억 원 등 총 69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공공기관: 태양광 975kW, 태양열 881㎡, 민간주택: 태양광 357kW, 태양열 447㎡, 지열 857kW)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평균 태양광에서 16만kW의 전력생산과 태양열에서 4만8000L(등유)를 대체할 수 있는 온수 생산, 지열에서 난방비 13만kW의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환경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1488tco₂를 저감시켜 소나무 53만19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해오던 방식에서 직접사업방식을 채택해 총사업비의 5%(3.5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영천시의 융·복합지원사업의 추진 및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해 사업진행중인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영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괄목할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는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일만 기자



김영석 영천시장은 29일 오전 (취급장, 동부동통장협의회, 영천공설시장 상인회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받는다.



이회진 영덕군수는 29일 오후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제5차 임시이사회'를 주관한다.



영천 북안면 북안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생 발표회 개최

영천시 북안면은 지난 27일 북안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한혜련 도의원, 모석중 시의회 부의장, 이춘우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및 운영위원, 수강생, 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북안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생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준비한 달타령으로 포문을 연 이번 수강생 발표회는 본 공연인 장구, 요가, 스포츠댄스, 가요 강좌의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열정적인 발표회의 장을 이뤘다. 김일만 기자

영덕군, 할매할배의 날 손주맛이 조부모 교육



영덕군은 할매할배의 날 확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주관으로 할매할배의 날 손주맛이 조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인성교육, 밥상머리교육에 참여한 어르신 및 어린이들의 호응이 좋아 손주맛이 조부모 교육도 연이어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은 손주 세대와의 소통방법과 손주 세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축산면 축산리에 거주하는 김명달(76) 어르신은 "손주맛이 조부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조손세대 간 친밀하게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워 의미 깊었다"며, "제가 가진 경험적 지혜와 예절을 자연스럽게 손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

영천시, 중소기업 지원 성과 빛을 받다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업 표창 잇따라

영천시는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 자금지원, 공공구매 등 5개 분야를 종합 심사하는 중소기업육성시책평가에서 영천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영천시는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2016년 한해 동안 720억 원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 했으며, 기술인증수수료

지원, 녹색전환기술지원 등 각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에 앞장 선 결과 지난 26일 개최된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청동면에 소재한 강구조물 제작 업체인 (주)경안플랜트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지난 10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엔텍이 경북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주)한중엔시에서 김환식 대표가 2016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주)금창(대표 송재열)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하는 2016년 Kicox 글로벌 상반기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에서도 영천시 기업

이 두각을 드러내 지난 9일 개최된 제53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주)신영(대표 강호갑)이 3억 불탑 달성으로 도내에서 최고 수출탑을 달성하는 등 10여 개 업체가 수상했으며, 수출유공자로 (주)디케이에스코리아 양준현 회장이 대통령상, (주)나인더스트리 신승동 부사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영천시는 내년 1월 20일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영천상공회의소 4층)를 시작으로 기업지원안내지도 제작, 영천시 누리집 '이달의 기업지원시책' 게재 등 관내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 지원사업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며, 상공회의소, 경북도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일만 기자

영천시 '별빛회', 대한민국 자원봉사단체 장관 표창 수상

(사)영천자원봉사센터는 2016년 한 해 자원봉사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기여한 자원봉사자(단체)께 노고를 치하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별빛회(회장 조남철)는 12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집수리봉사로 헌신해 온 뽐뿌리 단체로 지난 12월 5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자원봉사단체부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돼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또한, 나눔의 집(회장 우현옥)은 지난 27일 The-k경주호텔에서 열린 2016 경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경북도자원봉사대상(은상)을 수상했다. 김일만 기자

울진군,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평가 전국 군부 중 최고



울진군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맞춤형 보육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맞춤형 보육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준비, 어린이집 운영관리, 종일반 자격관리, 맞춤형 홍보 및 지자체 관심도 등의 4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했다.

울진군은 맞춤형 보육의 준비단계부터 시행 이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사후관리, 지자체 관심도 및 참여부담에서 높이 평가받아 전국 군부 중 최고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이용아동(만0-2세)에 대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형삼 기자

'2016 송년음악회' 영덕 예주회관 감동의 공간으로

국악과 대중가요가 함께 어울려 각 세대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축하의 의미와 함께 '2016 송년음악회'를 지난 23일에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6 송년음악회' 공연은 국악과 대중가요가 함께 어울리는 무대로 각 세대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악에는 오정혜 씨를 비롯 전통 국악을 빛낸 명창들이 나와서 다양한 한국의 소리, 음악, 몸짓을 보여주었고, 대중가요에는 최성수, 남궁옥분, 자전거 탄 풍경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관람객들과 함께 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2016송년음악회는 영덕군민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한해를 마감하는 의미와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축하를 알리는 자리였다"며, "이번 공연



이 무료 공연이었음에도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석 매진이 되면서 앞으로 더 문화공연 발전에 노력해서 군민들의 만족감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사랑해요 영덕

전국 시군구 브랜드 인지도, 매력도 1위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盈德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Yeongdeok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문화유산, 따뜻한 영이 넘치는 섬맛나는 고장!
관광객 전방시대로 도약하는 유네스코 영덕에서 고품격과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영덕군은 '섬맛나는 고장, 관광객 위한 시대 도어'를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및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영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덕군청 트위터 <http://twitter.com/ove4yd> 영덕군청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4yd
영덕군 문화관광과 <http://tour.yd.go.kr> 영덕마켓 <http://ydmarket.co.kr>

영덕군
www.yd.go.kr



남유진 구미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현관에서 열리는 '그린시티 구미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경산시, 지역안정 대책 추진 공무원 특별교육



경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산시 지역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한 세계경제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과 신뢰회복의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대통령 탄핵, 미국의 대선결과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위기속에서도 공직자의 할 일은 시민의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맑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운 기자

경산교육지원청-경산시청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경산교육지원청과 경산시청은 28일 경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발전과 협력을 위한 '2016년 제2차 경산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공동의장인 이금옥 경산교육장과 최영조 경산시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교육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경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강당, 운동장, 테니스장 등) 개방 및 요금인하에 대해 상호 협조할 것을 확인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산교육의 발전이 곧 경산시민과 경산시의 발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자리가 됐다. 신경운 기자

구미대표농산물 발굴 육성 위한 벤치마킹 실시

대표농산물 발굴 육성 위해 우수사례 합동견학 농업 경쟁력 향상 행정·의회·학계·농협·농업인 등 참여



구미시는 27일 구미대표농산물 발굴 사업을 위해 발굴협의회 위원과 선도농가 40여 명이 감자, 오미자 특화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표농산물 발굴은 지역에 안정적이고 특화된 품목 육성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품목 공모와 모니터링을 거쳐 행정·의회·학계·농협·선도농가 등으로 구성된 27명이 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난 8월 당진 감자, 천안 멜론에 이어 두 번째로 옥천 회오리 농업회사 법인과 문경오미자 특구의 가공산업을 방문해 지역 대표농산물 발굴에 접목 할 계획이다.

대표농산물 발굴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쌀, 감자, 멜론을 선정하고 2017년부터 3개년 동안은 시범사업 및 실증을 거쳐 2020년부터

구미대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한 옥천군 회오리감자는 지역농협과 감자 가공업체가 협업체를 맺고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를 체결, 농가의 안정적 출하에 기여하면서 이상적 상생협력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100g 이하 소량 감자를 가공업체에 납품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공업체(농협회사법인 회오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상생협력 우수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견학은 감자가공시설과 농협선별장을 견학하고 농협 및 법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문경시 오미자특구는 지난 2006년 오미자특구로 지정받아 현재 1000여 농가,

800ha에서 전국 오미자 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대상에 선정되는 등 농업경쟁력을 높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자농촌을 구현하고 있다.

오후에는 오미자연구소에서 행정간담회를 가지고 질의응답 하면서 지역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했고, 오미자특구를 방문, 시설물을 견학하고 체험활동을 가졌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도농통합도시 구미 농업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자농촌 구현을 위해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자"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시책 평가 우수상 수상

경산시는 경북도가 실시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수립,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 애로해소, 기타 수범사례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충을 위해 경산직식산업지구, 경산4 산업단지,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건립, K뷰티 융복합 산업육성 등 굵직 굵직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규모를 460억 원에서 700억 원 증액, 무역투자 사절단 운영, 경산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힘차게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운 기자

칠곡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칠곡군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공간 마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내달 2일부터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한다.

칠곡군은 2017년에 총 180명(경북대 40, 영남대 40, 계명대 30, 대구대 30, 대구가톨릭대 30, 경일대 10)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입사생은 거주경력, 성적, 출신학교 등을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칠곡군,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385억 원 지원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칠곡군은 설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운전자금 385억 원(2017년도 총 96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칠곡군에 분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 원, 우대업체는 5억 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칠곡군 경제교통과

(투자통상담당 979-6533)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선제적 맞춤형 지원으로 재정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구미과학관 관람객 4만 명 돌파!

구미시의 구미과학관은 2016년 한해 관람객이 4만 명을 넘어섰다.

구미과학관은 2008년 정부의 테마 과학관 건립지원사업에 선정돼 2011년 4월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7억을 들여 건립한 테마과학관이다.

그동안 구미과학관은 기초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환경에서 시작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왔다.

개관 7년차를 바라보는 구미과학관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년도에 비해 관람

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구미과학관에서는 돔 영상관과 4D영상관에서의 영상 상영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과학쇼는 계절별로 테마를 달리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빛의 색깔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으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전시물에 스토리를 입힌 과학관 투어와 야외전체관측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달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진에 관한 특강과 체험 그리고 크리스마스 테마 체험을 진행했다. 구미과학관을 방문

한 관람객들은 과학관 규모에 비해 즐길 거리, 배울 거리가 많으며 재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구미과학관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다른 테마과학관 운영의 모범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다.

2017년에는 과학실을 새로 조성, 스미스니언 미국역사박물관 내에서 운영하는 발명랩을 모델로 해 발명아이디어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물리체험관의 전시물을 확충해 우주물리를 테마로 한 전시관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절하고 따뜻하고 연구하는 과학관을 모토로 움직이는 구미과학관은 지역에서 과학문화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년 진화 중이다. 이은진 기자

미래형 첨단 혁신도시 김천입니다

영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제약·정관·출생·업력]

☑ 국가핵심공공기관 12개 이전 ☑ 신규산업단지 조성

2013~2014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전국 1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4년 연속 전국 10대 도시로 선정된 곳은 김천시가 유일합니다.

Central Gimcheon www.gimcheon.go.kr

정유년 새해, 문경서 좋은 소식 기원해 보세요



이정백 상주시장은 29일 오전 '오봉산 권역종합 정비사업 주민화합축제 및 준공식'에 참석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9일 오전 수륜면 남은2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실버 행복 그룹홈 준공식'에 참석한다.

고령군,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실시



고령군 주민복지실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각 마을별 (쌍림면 하거리, 다산면 상곡5리) 7주간 주2회 총14회 동안의 찾아가는 어르신행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로당 원예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원예프로그램은 꽃과 식물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자연친화적인만들기로 시행했으며 노인들의 사회, 교육, 심리, 신체적 적응력을 지원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농촌의 여건상 혼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는 우울한 기분을 없애고 심신에 활력을 부여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줬다. 손정석 기자

상주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현장 방문

상주시는 '동절기 민생현안 대책-총총한 복지로 서민생활안정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45개소, 경로당 571개소에 대해 시설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한파, 폭설, 지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장비보강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간부공무원 전원이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해 소외될 수 있는 입소자를 위문하고 추운 겨울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8일, 정신요양시설인 천봉산요양원을 방문, 이승부 원장과 담소를 나누며 시설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정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새재 성황당, 책바위 소망기원과 겨울여행 주간 대박 할인 제공

문경시는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소망기원 및 겨울여행주간(내년 1월 14일-1월 30일)행사를 추진한다. 문경은 예로부터 경사로운 소식을 듣는 곳으로 한국관광100선 1위, 한국관광의 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자인 문경새재에는 성황당과 책바위가 있어 소원성취를 바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다. 문경새재 성황당은 사적 제147호인 주흘관 성벽에 위치해 영험이 뛰어난 성황당 여신이 지키고 있으며, 조선시대 명신인 최명길이가 문경새재를 넘으면서 성황당 여신이 나타나 장차 나라에 큰 병란이 닥칠 때 청나라와 화친

해 나라를 보전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현재는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참가자들이 소원지를 적어 소망을 기원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또한, 문경새재 옛길 제3관문 아래에 위치한 책바위는 옛날 어느 부자집 자식이 꿈이 허약해 공부도,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유명 도인이 집터를 둘러싼 돌담이 아들의 기운이 누른다고 해 돌담을 헐고 삼년에 걸쳐 돌을 책바위까지 날랐더니 몸도 건강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 장원급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특히, 입시철에는 자녀의 합격을 염원하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좋은 소식을 듣는 문경에서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정유년 새해의 소망을 빌어 보길 바란다"며, "매력있는 문경 겨울체험관광지에 꼭 들리고 가족들과 함께 올 한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기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경시는 내년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 17일 동안 겨울여행주간으로 지정해 관광시설 대박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에는 정통 와인 샴페인 제조 기술을 오미자에 접목한 문경오미나라(www.omynara.com)가 체류료 10%할인 및 와인제품 10%할인을 제공하고 산과 산을 와이어로 이동하는 신개념 레포츠 관광 자원인 문경짚라인은 체류료를 주중 20%할인, 주말10%할인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로 길 위의 역사를 간직한 옛길박물관 입장료를 20%할인, 광부의 고된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석탄박물관 입장료 25%할인,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불정자연휴양림과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을 주중 2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초의 문경철로자전거는 주말, 주중 20%할인을 제공하며 전국에서 가장 저



렴하고 시설이 좋은 문경관광사격장은 주말, 주중 클레이사격 10%할인, 권총사격 15%할인 혜택이 있다. 겨울여행주간 누리집(http://winter.visitkorea.or.kr/)을 통해 참여업체를 확인하고 쿠폰을 출력하거나 모바일로 쿠폰을 저장해도 된다. 박세영 기자

상주시, AI 방역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읍·면·동 AI 방역태세 총력 당부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7일 개최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관합동 영상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자, 상주시에서는 이날 오후 시청 관계공무원 및 읍·면·동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부시장 주재로 'AI 방역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전국 AI 발생현황 및 상주시 방역 조치사항과 향후 중점 추진계획, 읍·면·동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철새 등 야생조수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하천 및 저수지 주변 500m 이내의 소규모 가금류를 파악해 예방적 도태(살처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체

가금사육농가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가금농장 자율소독 강화와 가금류 방목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일 부시장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 우리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공무원이 방역태세를 완벽히 선제적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2016 동절기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온실 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위원장 권상인)는 27일 오전 영강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2016년 동절기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문경시가 주최하고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영강문화센터를 찾은 내원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구를 건강

하게 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함께 홍보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각 가정, 학교, 민간단체, 공무원이 추축이 돼 지구온도 2℃상승을 막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를 유지,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기플러그 뽑기, 쓰레기는 줄이고 반드시 분리 배출하기, 걷기, 자

전거타기 등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등 실천서약서에 서명운동 및 서명자에게 홍보물품인 수면 양말, 장갑을 배부했다. 권상인 푸른문경21추진위원장은 "겨울철 외출시 따뜻한 목도리, 장갑과 함께 내복을 입음으로써 체온유지가 올라가고 난방온도를 낮춰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원 환경보호과장은 "지속가능발전 저탄소생활실천운동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문경,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클린 성주 만들기 읍·면 평가서 성주읍 대상 수상

성주군은 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의 읍면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 성주읍, 최우수상 용암면, 우수상 선남면, 월항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올해 추진 실적중 △주민 및 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군민식문화 △생활속 클린성주 실천, 들녘환경개선 등 청정환경개선분야 △재활용동네마당 관리 및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를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 구축분야를 중점 평가했으며 '내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민간 주도의 클린 성주 만들기 확산의 해로 클린성주 현장의 중심인 최일선 읍면의 특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성주읍의 교통섬 및 공한지의 사계절 녹지 공간 조성,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를 연계해 꽃씨를 직접 채취해 조성하는 이천면 야생화 군락지 등 단년생을 다년생으로 식재해 예산절감 및 지역경관 개선으로 타 읍면의 모범이 되고 있다. 67동기회, 경산6리 마을청년회 등 13개 단체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행복출세 입양사업은 민간주도의 클린성주만들기 확산에 점차 역할을 했다. 선남면 도흥3리 마을 주민들의 재활용동네마당 관리로 자원 재활용품 판매 및 마을공동체 조성은 우수사례로 전국으로 파급 확산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자원순환구축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올해는 주민과 다 함께, 주민이 만드는 클린성주의 해로 자발적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군민과 하나 된 클린성주를 확인했다"며 말했다. 아울러 "클린성주 시행 5년째로 이제는 주민 및 단체, 기업 등 민·관 모두가 하나돼 실천을 생활화해야 할 때"를 재강조하며, 내실있는 클린성주 추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하고, 그동안 '친환경 행복 농촌 클린성주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노균 기자

푸른숲! 맑은물! 건강한 도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상주로 오세요!

www.sangu.go.kr

서안동농협 '풍산김치' 對 중국 입맛 사로 잡는다

전통식품 풍산김치
對 중국 수출 개시



안동시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가 27일 상차를 시작으로 對 중국 수출의 물꼬를 틀었다. 중국 춘절맞이 행사용 김치와 상해지역 경북 상설판매장에 NH무역을 통해 7톤 1만 8000달러를 수출하게 된다. 파우치포장 500g 형태로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3종이 수출되며, 향후 월 13톤의 수출로 연간 150톤 40만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그동안 열처리된 중국 파오차이(泡菜) 위생기준인 100g당 대장균 30마리 이하를 적용해 통관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2015년 12월부터 '비밀균형 발효식품에 대한 대장균군 제한 규정 제외 적용'으로 위생기준이 개정돼 올해부터 김치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년의 Know-How를 가진 풍산김치는 20여 종 전 제품에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표고버섯과 상황버섯 추출액을 사용하

며, 100% 국내산 우수 재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전통김치의 참맛'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며, 2008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대상(대통령상) 수상, 2012년 제1회 김치품질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2007년 미국, 영국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9개국에 대해 326톤 103만달러를 수출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인 125만 불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대화된 시설과 함께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생산을 추진한 결과 1997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2007년 HACCP 인증을 받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제조공정 시설의 청결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 김치 세계화에 앞장선 결과로 풀이된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은 전통식품으로서의 풍산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대중국 시장확대

를 통해 2017년 200만불 달성, 향후 400만 불 이상의 수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유흥대 유통특자과장은 "풍산김치 수출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 한 해 배추 자동 공급기, 김치PT병 충전기 등의 행정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잠재력 높은 중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풍산김치와 상호협력해 수출이 꾸준히 증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규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리는 농업경영인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임대형 공공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식'에 참석한다.

군위군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따뜻한 후원 손길 이어져...



매서운 추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많은 후원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효령면에 소재한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지원센터에서 효령면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쌀 20kg 2포대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고, 부계면 일월화교에서는 대한적십자사군위군지구협의회를 통해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과 취약계층어르신에게 한과 300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한국부인회군위군지부 회원들이 동화책을 지원하고, (사)전국주부교실 군위군지회에서도 의류 및 신발 등을 후원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후원받은 물품을 대상가구 중 필요한 아동에게 골고루 전달했으며, 후원품을 전달받은 고로면 드림스타트 대상가구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위한 전집을 사주지 못해 마음 아팠는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쌀, 라면 등을 후원받은 효령면 드림스타트 대상가구에서는 "추운 겨울에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줄 수 있어 기쁘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이가 성장해 받은 도움을 사회에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성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추운 겨울에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받은 사랑만큼 한발 더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지역아동을 위해 후원의지가 있으신 분은 드림스타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대구지역 주부 블로그 기자단 초청 '착한여행' 팸투어

사회적기업·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판로지원



의성군은 지난 27일 대구지역 주부 블로그 기자단과 어린이 40명을 초청해 '착한여행'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청년창업팀인 의성청년이룸협동조합 주관으로 운영됐으며 대구지역 주부 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 의성군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주요관광지를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팸투어단은 의성군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제월아트체협센터에서 도자기 체험을 했고 마늘테마파크에서 아미키즈카페, 영화관, 마늘홍보관에서 체험 및 관광을 즐겼으며 의성전통시장에서 장보기행사와 의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조문국박물관을 관람하고 어린이 고고 발굴 체험도 즐겼다.

한편, 블로그 기자단은 이날의 체험관광을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했다.

의성군은 지난 12월 7일에도 수도권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초청,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통시장의 현장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먹거리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도시 및 대학교 블로그 기자단을 대상으로 팸투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2016년에도 임(林)자 수고했소!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휴양·녹색공간 조성에 '열정'을



안동시가 올 한 해 동안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고 싶은 행복 안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올해 45억여 원의 조림·숲가꾸기 예산으로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흡수원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림 사업 70ha, 숲가꾸기 사업 3480ha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보이는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산림자원 이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 단위 중 가장 넓은 산림면적(10만 6518h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기별, 원

인별 맞춤형 산불방지구축대책을 수립해 봄철 산불발생 건수가 지난해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 취약지역 지속 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와 같은 선제적인 예방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산림행정력을 모두 투입한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방제업무는 T/F팀을 구성해 재선충병 박멸을 위해 피해조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항공방제 등 방제사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김용규 기자

안동시 자동차 8만대 돌파, 전국평균 추월

안동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6년 말 기준 8만대를 돌파해 전국평균 2.2명당 1대 보다 더 많은 2.1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에 6만 5000대에서 2013년에 7만대를 돌파한 이후 다시 3년 만에 8만대를 넘어서는 대폭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에 5만 7000대를 비교하면 연평균 2-3000대씩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이렇게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자가용 운행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최근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는 만큼 교통질서 유지와 자동차 안전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예천군, 2016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 '대상' 수상

예천군은 올해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2016 시군 도민안전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안전한 예천,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해 동안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에게 큰 사랑과 호응을 받았다.

2016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에 안전지킴이 12명을 배치했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지킴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으며 관내 7개교 145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개최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위험 상황 대처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지진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안전재난업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살기 좋은 전원도시 의성으로 오십시오!

의성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의성 농·특산물은 친환경적이며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의성 마늘소는 순수 한우입니다. 봉양 재래시장에는 '마늘소 먹거리 타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영주 선비문화 코스 선정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부석사, 국립산림치유원 연결



영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부석사, 국립산림치유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요조사와 지자체의 자구 노력과 추진의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전문가 현장답사 등을 거쳐 영주시를 포함한 선비문화 코스를 비롯해 10개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영주시는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등 유물문화를 간직한 선비문화의 본고장으로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 선생과 조선의 통치철학을 기획하고 만든 정도전 등 수많은 선비를 배출한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고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은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4500명의 선비를 배출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을 새롭게 밝힌 곳으로 풍기군수 주세붕과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굽적한 족적을 남긴 곳이다.

이런 역사를 간직한 영주시는 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을 통해 과거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선비정신을 교육하는 등 선비문화의 체현, 교육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도시 비전선포식을 갖고 선비정신운동실천본부를 창립해 선비문화를 재해석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3대 문화권 사업 선도사업으로 순흥면 일대에 건립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는 한복, 한식, 한옥, 한음악, 한지, 한글 등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6개의 테마로 교육과 강학, 체험 모두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 조성돼 영주가 선비정신의 교육, 전통문화체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심지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주시는 이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활용, 안동, 문경, 대구광역시와 협력해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비관련 관광자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주목받는 촬영지, 무섬마을

물 위에 뜬 연꽃모양을 한 무섬마을은 우리나라의 민속 마을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2013년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15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과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만주제를

비롯한 총 9개의 가옥이 경북문화재자료 및 경북민속자료로 지정됐으며,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는 가옥이 16채나 남아 있어 선조들의 자취와 숨결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3면을 감싸고 돌아 섬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마을에 자리한 외나무다리라는 1983년 콘크리트 다리가 생길 때까지 350년 가까운 세월을 마을과 바깥세상을 이어주는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던 유일한 통로로, 현재까지도 예전 모습 그대로 만나볼 수 있어 마을의 대표 상징물로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너른 백사장과 앞은 강물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는 각종 드라마와 광고, 영화의 촬영지로 선택돼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유교의 산실, 소수서원과 선비촌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수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학문의 전당이자 선비의 고장 영주를 탄생시킨 곳이다. 조선 중종 38년(1543)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민족교육의 산실로 퇴계 선생의 제자를 포함한 4천여 명의 유생을 길러냈으며,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소수서원과 연계돼 있는 선비촌은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등 기와집 7채와 두암고택 가람집 등 초가집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선비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오감 체험형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가 수시로 제공된다. 또 인근에 위치한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매년 선비정신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한 학생들과 직장, 단체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부석사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한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비롯해 조사당(국보 제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등 국보 5점, 보물 6점, 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연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녀 2013년 12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사사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다. 부석사와 소백산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치유와 힐링,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산림치유원은 영주시 봉현면과 옥녀봉 일대 건립된 국가 산림치유 시설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치유 국가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국립산림치유원은 1480억 원을 투입해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수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조성했으며, 산림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숲을 통한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상기 기자

청송 ‘해양안전공모전’ 체험수기 대상 수상

도평초 박수열 교감 최고의 상



청송 도평초등학교 박수열 교감은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해양안전공모전’의 시상식에서 체험수기 부문에서 최고 성적인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교감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수기인 ‘바다의 두 얼굴’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지난 5월 열린 매일신문 주최의 ‘2016 전국재난 안전수기 공모’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바다의 두 얼굴’은 해양안전 전문가 및 문학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재미와 교훈을 적절히 혼합했으며, 표현 기법도 수준이 높다’는 심사평을 들었다.

‘해양안전공모전’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 해 공모전에는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국민제안의 4개 부문에 총 533개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각 부문별

대상 4점을 포함해 총 42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박수열 교감은 “어릴 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해양사고 경험이라 부끄럽습니다만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교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체험수기를 비롯한 포스터, 웹툰, 국민제안 부문의 입상작은 해양안전 실천본부 웹사이트(www.해양안전.com)의 수상작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구 기자



장국현 영주시장은 29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영주 풍기인건 글로벌화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29일 군정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봉화군, AI 차단 발 벗고 나서

봉화군은 28일 전국적인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AI 사진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AI 차단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찰서, 119안전센터, 군부대, 농협, 축협, 수의사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경찰서의 소득미실 시자에 대한 합동 단속, 119안전센터의 소득미실 급수 및 농·축협 및 수의사 협회의 농가 방역홍보, 유사시를 대비한 군부대 협조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농촌 정보화마을 상호 간 상생의 길 찾아

농촌마을간 상생을 길을 찾아 봉화군 춘양목송이마을과 제주시 저지예솔마을은 마을간 특산품인 사과와 꿀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마을은 200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마을간 상호 방문 등 마을농산물 상호 구매 등을 통해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봉화군 춘양목송이마을은 감귤 10kg 150상자를 구매했고, 제주 저지예솔마을에서는 사과 5kg 100여 상자를 구매했다.

춘양목송이마을 김호중 위원장은 “매년 농산물 팔아주기로 마을간 우의를 다지고, 주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신선한 감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며, 마을 상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영주”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태어나
'선비로 산다는 것'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바꾸길 꿈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500년 새로운 역사의 기를 마련한
위대한 사상가 정도전이 되었습니다.

영주에서 또 어떤 꿈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SNS 통해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지방분권 알린다

제1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 개최

지방분권을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공감대와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소통 전도사 역할을 수행할 제1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이 29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

는 29일 오후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1기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원 2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5개팀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지방분권 UCC를 제작·홍보하고,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 매체에 지방분권 관련 콘텐츠를 생산, 게시 및 전파하는 등 지방분권 홍보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홍보단의 활동실적을 매월 취

합해 실적을 토대로 우수 홍보단원과 우수 팀에 대한 시상상을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20명의 대학생 홍보단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각계각층으로 전파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

이다.
한편, 이번 홍보단 발족을 위해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으며, 경북대를 비롯해 영남대, 계명대, 금오공과대학교 등 대구경북 소재 10개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홍보단원으로 선발했다.
계명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유선경(여, 21세) 학생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임을 전달하겠다"

며 참여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대학생들의 젊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방분권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방분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홍보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래 기자



대구시 '달구별홍보회' 오종식 회장 선임

대구시 분청, 각 구청, 군청, 교육청에서 사진과 영상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달구별홍보회' 2017-2018 회장에 달성군청 군청홍보팀 오종식(사진) 씨가 선임됐다.
2002년 9월부터 달성군청에서 사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 회장은 "우선 회원들의 친목도모에 힘을 쏟고, 대구광역시 각 구군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달구별홍보회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달구별홍보회는 지난 2001년 결성됐으며, 대구시와 각 구·군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롯데백화점 "지역과 한마음 돼 재기 도울 것"

서문시장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롯데백화점은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서문시장은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임준원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화마가 덮쳐 상심이 큰 서문시장 상인들을 위한 신

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연하게 재기를 준비하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구세군 자선냄비에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달된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사랑의 간식 판매와 사용하지 않는 생활필수품 판매를 통해 마련됐다.
최윤희 기자

하빈면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하빈면 농업경영인회(회장 탁정운)는 지난 27일 하빈면 2층 회의실에서 제18대-19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석동용 하빈면

장, 이해성 하빈농협장 등 관내기관단체장과 농업경영인회 회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임원진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제19대 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조여은 기자

이날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권병동 농업경영인회장은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오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FTA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달성농업의 미래와 하빈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여은 기자

"외국인주민, 이 책 한 권이면 모두 통해요"

대구생활 가이드북 6000부 발간



대구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생활가이드북 6000부를 3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해 28일부터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주민에게 배포한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한 대구생활가이드북은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반영해 생활에 꼭 필요한 입국초기 체류안내, 생활정보 등을 수록했으며, 28일부터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요 외국인지원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와 대구 소개, 외국인지원기관 안내, 대중교통 이용방법, 의료정보, 쓰레기 배출방법 등 생활정보 분야 △외국인등록,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체류안내 분야 △드림스타트, 주니어학교 현황 등 유용한 정보 분야 △대구 12경과 10미, 시티투어 등 대구 관광 분야의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건강보험 자격취득,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외국인학

교 안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대학 교육 학자금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대구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수록해 작년 보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생활가이드북은 외국인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생한 정보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언어로 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으로 정보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적응, 생활·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콜센터를 13개 국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1577-1366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서 제2의 키다리 아저씨 희망 나눠

수성구 익명 기부자들 이웃 돕기 성금 1000 만 원 전달



대구 수성구 고산3동에 제2의 키다리아저씨가 나타났다.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경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웃돕기 기부의사를 밝히 담당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류재현 기자

신청서에는 후원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도록 돼 있었지만, 부부로 추측되는 이들은 신청인 란에 '익명'이라고 적은 뒤 수표 1000만 원권을 내밀고 홀연히 사라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고산3동희망나눔후원 신청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갑작스런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정신질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거나 고산3동희망나눔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에는 2003년 이후 매년 명절마다 백미10kg 2000포(4600만 원 상당)를 전달하는 익명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
2014년 익명의 기부자가 노환으로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녀들이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어김없이 명절마다 쌀을 전달하고 있다.
류재현 기자



수성구 수성4가동 정원한우갈비 이웃돕기 백미 20kg 30포 전달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정원한우갈비(대표 김진희)는 27일 수성4가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이웃돕기 성품 백미20kg 30포(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류재현 기자

복지사각지대 구강건강 관리 우리가 책임 집니다

침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민치과의원 후원연계 사업 협약식

대구 북구 침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민치과의원(원장 김창홍)은 지난 28일 오후 북구에서는 최초로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 치료(치료)분야 후원연계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홍 한민치과의원(북구 침산동 소재) 원장과 침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부문-이상권, 공공부문-방광현)의 위원 6명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료(치료)분야 후원연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문오 달성군수는 "유난히 추운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따뜻한 소식을 들려줘서



주요내용은 침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해 한민치과의원에서 최소한의 진료는 무상으로 하며, 보철 등의 재건 및 회복 등에 관해서는 한민치과의원의 재량에 따르기로 했다.
이상권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 체결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지역의료(치료)분야 후원연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김창훈 기자

추운 겨울 사랑의 삼계탕으로 따뜻함 나누다

농협달성군지부, 삼계탕 1000팩 기탁

농협달성군지부(지부장 황기환)는 28일 달성군청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삼계탕 1000팩(8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황기환 지부장은 전달식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삼계탕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오 달성군수는 "유난히 추운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따뜻한 소식을 들려줘서



군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군도 나눔과 배려가 늘 함께하는 희망찬 복지달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삼계탕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주시새마을연말평가대회 성료



최우수 상망동새마을회, 우수 단산면, 부석면새마을회, 장려 풍기읍, 봉현면, 하망동 6개 읍·면·동 새마을회 선정

영주시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영주시새마을회(회장 권영순) 주관으로 올 한해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 결산과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해온 일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6 영주시새마을연말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종합평가보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종합평가 우수 새마을회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새마을회는 최우수 상망동새마을회, 우수 단산면, 부석면새마을회, 장려 풍기읍, 봉현면, 하망동 6개 읍·면·동 새마을회 선정

회, 장려 풍기읍, 봉현면, 하망동 6개 읍·면·동 새마을회가 선정 됐다.

개인 새마을유공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봉현면 조일성, 휴천3동 김일숙, △경상북도지사 표창은 가흥2동 김정자, 이사 유순남, 장수면 우병창, 부석면 이정춘, 순흥면 박연옥, 휴천1동 김종순, 장수면 조정순, Y-SMU 조수빈, △경북도의회의장 표창은 새마을협의회 홍수성, 새마을부녀회 김세연,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은 이산면 임준규, 영주2동 김일수, 평은면 권명주, 풍기읍 류수옥, 휴천2동 정경자, 교통봉사대 백규화, △경북도새마을회장 표창은 봉현면 최경자, 휴천2동 권정학 씨가 각각 수상했다.

권영순 새마을회장은 "2016년 한해는 제2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참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새마을회원 모두가 한해 흘린 땀의 결실이 시군평가 결과 새마을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영주시새마을회는 4000여 명의 회원이 기초단체별 시군별 캠페인,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어르신 삼계탕 나눔 봉사, 연말 경로 효 잔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 실버야카테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16년 새마을업무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인재육성 기업·단체 장학금 기탁 잇따라

금강레미콘(주) 500만 원, (주)한국파이프 200만 원, 봉화상우회 100만 원 기탁

봉화군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과 단체의 장학금 및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금강레미콘(주) (대표 박우선)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7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박우선 대표는 "이런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정을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했다.

또 지난 23일 (주)한국파이프(대표 민춘홍)에서 200만 원과 봉화상우회(회장 반근식)에서 100만 원을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박노옥)에 전달했다.

안동시 풍산읍에 소재하는 (주)한국파이프는 PE이중벽관을 주로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ISO 9001과 ISO 14001을 인증 받은 등 최상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민춘홍 대표(봉화 석포 출신)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한, 봉화상우회(회장 반근식)는 봉화지역



에서 상업을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로 매년 불우이웃 돕기, 지역학생 장학금 지급,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반근식 회장은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천 (주)화신 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 기탁

지역사랑 통큰기부 매년 이어져

영하공단내에 있는 (주)화신(대표 정서진)에서는 지난 28일 동부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1세기 자동차부품산업의 선도기업인 (주)화신은 200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그동안 기탁한 누적금액이 4억 원을 넘어섰다. 또한 임직원회에서는 일일차집을 운영해 모은 기금과 실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희망나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훈훈한 연말 보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주)화신 정서진 대표이사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이웃들이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현 동부동장은 "이웃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해마다 이웃돕기에 앞장서는 (주)화신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일만 기자

문경바르게살기운동協, 사랑의 떡국나누기

어르신 400여분 모시고 이웃 간 따뜻한 정 나누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장 김성열)는 지난 22일과 27일 농암면과 문경읍에서 관내 어르신 400여 분을 모시고 사랑의 떡국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여성회(회장 손국선)주관으로 시행됐으며, 여성회원 40여 명이 전날부터 떡국거리와 상차림을 위한 부침개 등을 준비하는 등 성실히 마련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바르게 여성회에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떡국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한다"는 덕담을 전했다.

김성열 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웃간의 훈훈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행사에 앞장설 수 있어 뿌듯하며,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한 육수의 떡국이 너무 맛있었고, 여성회원과 청년회원들

의 정성어린 상차림에 고맙게 잘 먹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세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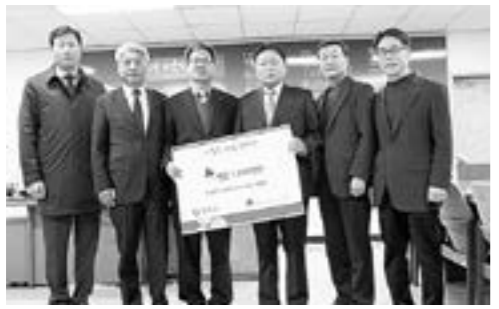
한국프라스틱(주) 대표 배영희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부

한국프라스틱(주) 배영희 대표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희망을 나누고자 지난 26일 오전 영양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구에서 대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프라스틱(주) 배영희 대표는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가 고향이다.

배영희 대표는 "고향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영양군청을 직접 방문해 그 뜻을 전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권윤동 기자



풍기읍사무소 권용환 주무관, 베스트 직원 선정

영주시 풍기읍 이장협의회 모범직원 선발 감사패 전달

영주시 풍기읍 이장협의회(회장 명재철)는 지난 23일 개최한 풍기읍사무소 정례 이장회의에서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권용환 주무관에게 풍기읍이장협의회회원의 정성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용환 풍기읍 산업경제팀 직원은 2016년 1월 행정7급으로 신규 발령을 받은 이후 짧은 근무경력에도 예의바른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잘 사는 풍기 건설에 일조했고, 시정을 알리고 읍민화합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풍기읍 이장협의회는 매년 읍사무소 직원 중 성실하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는 모범직원을 선발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현준 산업경제팀장, 최화경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다.

명재철 풍기읍 이장협의회장은 "권용환 직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를 전달했다"

며, "앞으로도 풍기읍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용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며, "늘 잊지 않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기 기자



상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웃돕기성금 기탁

33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시일반 모은 200만 원

상주시영·유아보육발전에 힘쓰는 상주시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을 기탁,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상주어린이집 연합회 김미향 회장을 비롯, 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26일 시청을 방문, 연합회 소속의 33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 김미향 회장은 26일 시민의 방에서 성금을 전달할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랑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으며, 상주의 저소득층을 위해 뜻 깊게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은진 기자

동천문화재단 조철로 이사장, 성금 천만 원 쾌척

이웃돕기 나눔문화 동참

동천문화재단 조철로 이사장은 지난 26일 영덕군수실에서 영덕을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조철로 이사장은 토목, 건축을 주로하는 건설업체 대표로 작년에 500만 원의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해 타 업체의 모범이 됐다.

조철로 이사장은 영덕레미콘 회사도 같이 경영하는 업체대표로서 올해는 영덕, 영해, 달산 세군데 레미콘회사의 직원들도 실시일반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나눔 문화에 동참하도록 했다.

김광영 영덕읍장은 "기업체 대표가 나눔 문



화 분위기에 동참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흐뭇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승건 기자



오늘... 생각한다

■ 광역칼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을 바꾸더라도 존속시켜야



석 호 익

한국디자인융합진흥원장

‘최순실 게이트’ 이후 ‘창조경제’가 스타트업들에게는 주홍글씨가 되고 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창업정책인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대기업이 함께 지역 창업가를 후원하는 공간이었다. 대기업이 혁신센터 한 곳씩 말아 수십억 원씩 출연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들이 상호 협업하는 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센터는 고용존 설치, 청년 취업 지원과 신규 인력수요 창출, 청년희망재단 등과 협력해 창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상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혁신센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지 하락’ ‘혁신센터 폐쇄에 대한 불안감’ ‘정부 지원 감소’ ‘투자유치 차질’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말쑥한 스타트업들까지 미심쩍게 보는 경우가 많고 투자를 약속했던 벤처캐피탈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전국의 혁신센터 입주 기업 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은 최순실 사태 후 센터 폐지 등 미래 불안감(36%), 이미지 하락(22.7%), 지원 감소(21.3%), 투자유치 차질(5.3%)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스타트업들은 그러나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혁신센터를 더 확대(62.7%)하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36%)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반이 넘는 업체들은 혁신센터가 폐지될 경우 닥칠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무 공간과 각종 지원’(62%)을 꼽았다. ‘투자 유치 애로’(21.3%), ‘기업 홍보 타격’(14.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중 업체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창업생태계 조성’(32.4%)이었다. ‘정부 지원 확대 및 창업 육성기관 설립’(28.3%)과 ‘창조혁신센터 조성’(23%) 등이었다.

다행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생태계 조성이란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혁신센터에 대한 일부 수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혁신센터가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기여해 왔음을 감안해 지속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며 “센터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거점으로 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다행히 폐쇄가 우려되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예산 436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창업지원 등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되살아

날 공산이 커졌다.

매번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입주 업체들은 “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게 다음 정권에서 없어지면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센터를 정치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간 쌓은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경제가 잘못됐다고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란 이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이 전면 폐기되면 한국 창업 생태계는 황폐화된다. 다만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희망대로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을 떼고 명칭을 바꿔서라도 유지하거나 새 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센터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차제에 지역별로 수요와 성과, 특색 등을 감안해 육성을 가리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혁신센터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지만 자금과 판로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대기업의 초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돌파구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히든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밑 한파 녹이는 ‘착한 송년회’

벌써 세밑이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쓸쓸하고 애처롭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는 각종 회식·모임이 줄줄이 이어질 때다. 십여년 전만 해도 흥청망청 망년회가 주류였다. 힘들거나 수고로웠던 일, 아픈 기억을 잊으며 부어라 마셔라 했고 2차, 3차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지난 일들을 반성하며 한 해를 보내자는 의미의 모임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송년회 대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으로 뜻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직원 송년행사 대신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실천으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말 직원 봉사활동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눠야 한다는 직원들의 마음과 연말연시를 겸손하고 내실있게 보내기 위해 직원 1% 나눔 성금과 직원자율 모금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뜻 깊은 송년모임은 각 실·국별 50~60명씩 저소득세대 등을 찾아 연탄 나누기, 급식봉사, 장애인 일손돕기 등 부서별로 노력봉사는 물론 직원 1% 나눔 성금과 직원자율모금으로 후원금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직원 60여 명이 저소득가정 10세대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고, 연료뱅크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27일에는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상인,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급식봉사 활동 등을 펼쳤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경제환경국, 도시안전국 직원 110여 명이 성산복지재단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수발과 말벗이 돼 드리고, 달구벌중합복지관 대구다문화 장애인근로자직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머리핀과 자동차 부품 조립 등 공동작업으로 장애인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달서구의 이런 모임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부터 형식에 치우치던 종무식 대신 관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무료급식봉사, 장애인 일손돕기 등을 통해 이웃사랑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파가 매섭다.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이웃에게겐 겨울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때 작은 정성도 더없이 소중한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착한 송년회는 그래서 더욱 반갑고 소중하다.

국정·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혼란만 키운다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결국 1년 연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철회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말 많고 탈 많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가 2017년 ‘연구학교 채택’, 2018년 ‘국정·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후퇴한 것이다. 국민 64%가 국정교과서가 적당하지 않다고 할 지경이란 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현 정부의 고집이 ‘혼용’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국정교과서라는 단일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폐기된다. 대신 교육부가 그동안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지 않고 살려나가는 셈이 된다.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정교과서라는 단일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폐기된다. 대신 교육부가 그동안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지 않고 살려나가는 셈이 된다.

2018년 국정·검정 혼용체제 도입에 앞서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이에따라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교과용도서에서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학교교

과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조사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강제하기보다 국정과 검정의 혼용, 또는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획일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클 수 있지만 6·25 전쟁이 남북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등 극히 좌편향적인 내용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현행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 일색이란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 점은 지나친 우편향 기술도 마찬가지다. 극우도 극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 점에서 현장검토본도 다양성과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처지다. 더구나 내년 2월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3월에 학교에 배포되기도 전에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바에야 교육부가 말 많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나의제언

연말연시 따뜻한 배려는 우리 가정에서...



이 언 규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말연시 뜰 뜰 분위기속에 직장 동료 등과 각종 모임은 하다보면 자연스레 음주를 함께하게 된다. 화기에 애한 분위기는 모임으로만 끝나야 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귀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귀가한 후에 남은 술기운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져 하루아침에 자신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가족들은 피해자로 전락해 다음 날 아침이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례가 종종 있

어 담당자로서 안타깝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극단적인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해 질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피해가정에 대해 세심한 보호지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등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최근 2년간 전국통계에 따르면 '14년도 28만750건 '15년도 32만3331건으로 증가했고, 적극적 피해자 상담과 112신고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이 '14년도 1만 8666명, '15년도 4만7549명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112로 신고되는 모든 가정폭력 등 확대신고 사건에 대해 2명에 확대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 피해가정 보호를 위해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으며, 매일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으며 13명에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들이 가정폭력 피해 신고 사건에 대해 24시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경산시청 등 협업 단체들과 솔루션(Solution)회의를 개최해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가족사랑은 우리 이웃과 사회에 대한 마음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찰에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 물을 지켜주세요

소중한 물!! 물을 아껴 쓰는 생활습관을 실천합시다

대구광역시일보 환경 캠페인

